

대형트럭 출고 고객에 전주관광 홍보

전주시·현대차, '엑시언트 드라이빙 아카데미' 개최... 한옥마을 관광·엑시어트 연비 주행 스킬 등 교육

전주시와 현대자동차가 대형트럭 출고 고객들을 대상으로 전주한옥마을 관광과 접목시킨 '엑시언트 드라이빙 아카데미'를 열기로 해 주목을 끌고 있다.

시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20일 전주한옥마을 경계전 앞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문정훈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장, 대형트럭 출고 고객 및 가족 등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차 엑시언트 드라이빙 아카데미 행사'를 개최했다.

이 프로그램은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하는 대형트럭인 엑시언트를 구매하고 고객들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운전을 돕기 위한 1박2일 체험 프로그램이다. 시와 현대자동차는 상호 협력 아카데미를 전주한옥마을 체험과 접목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1박2일간 전주한옥마을 및 영화의 거리 등 주요 관광지를 체험하고, 대형트럭인 엑시언트 연비 주행 스킬 및 차량 관리

요령 교육을 받은 후 신차를 출고 받게 된다.

시와 현대자동차는 이 행사 참가자들을 위해 전주 라마다호텔 숙박권을 제공하고, 전주한옥마을 체험 등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시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 해 평균 수천 명에 달하는 대형트럭 출고 고객들을 전주한옥마을을 체험으로 유도함으로써 전북관광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현대자동차는 엑시언트 드라이빙 아카데미와 병행해 해외 고객들과 연계한 전주한옥마을 체험도 적극 추진 중이다.

해외 상용차 바이어 및 해외 기자 등을 초청하여 전주공장을 견학한 뒤 전주한옥마을을 둘러보게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전주한옥마을 등을 다녀간 해외 바이어 및 기자 숫자만도 300여명에 달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국내 최대



전주시와 현대자동차가 대형트럭 출고 고객들을 대상으로 전주한옥마을을 관광과 접목시킨 '엑시언트 드라이빙 아카데미'를 열기로 해 주목을 끌고 있다.

규모 상용차공장 설립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대형트럭 출고 고객들을 활용해 관광산업 활성화에까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준다

니 정말 감사한 일"이라며 "시 차원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대형트럭 출고 고객들을 활용해 관광산업 활성화에까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준다

/김민근 기자

네이버, 이달 말 '웹문서·사이트' 검색 통합

네이버가 이달 말 '웹문서'와 '사이트' 검색 영역을 '웹사이트'로 통합한다.

20일 네이버에 따르면, 이번 검색 영역 통합은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해 웹문서 검색을 고도화하는 '그리핀(Griffin)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네이버는 통합된 웹사이트 영역을 이달 말 기준으로 명칭을 '웹사이트'로 변경하되, 답변간 이용자 혼란을 방지하고자 통합검색결과 내에서는 사이트와 웹문서를 한시적으로 구분해 노출하기로 했다.

웹사이트 탭 안에서도 기존의 웹문서와 사이트 검색결과를 선택해 볼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 피드백을 반영하며 점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외부의 좋은 문서들이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4년 '타우린(Taurine) 프로젝트'에 이어, 올해부터 '그리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네이버는 이번 웹사이트 영역 통합에 대해 "수집 로봇이 실시간으로 공신력 있는 사이트와 다량의 웹문서를 잘 가져와 검색 결과에 빠르게 반영하

고,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복잡·다양한 스펙 문서들에 대응하며, 이용자들의 검색 의도가 지 반영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그리핀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이라고 설명했다.

수집 시스템의 경우, 수집 로봇이 뉴스, 위키백과 등 신규 콘텐츠를 상시 분석하며 새롭게 등장하는 웹문서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실시간 스트리밍(Streaming) 구조의 문서 수집 시스템을 통해 현재 시점에서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웹사이트의 문서를 더 빨리 발견하고, 이용자 선호도의 변화를 보다 빠르게 반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AI 기반의 매칭 기술을 통해 사용자가 '국립중앙박물관 가는 법'을 검색했을 때 사이트 내부의 '국립중앙박물관 오시는 길' 혹은 '학도나 길 찾기' 등 서로 다른 단어가 명시돼 있는 웹문서라도 자동으로 매칭해 제공할 수 있다. AI기반 기술은 이용자들이 자주 방문하는 페이지나 선호도 높은 문서 및 메뉴 등도 자동으로 추출해 검색 결과에서 사이트와 함께 요약 정보를 보여준다.

/뉴스스

무주덕유산리조트 '첫 제설' 시작

매년 1회 이상 리프트 긴급 구조 훈련 실시도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부영그룹 계열 무주덕유산리조트(대표 김시권)가 2017~2018 동계 시즌 개장을 위해 첫 제설을 시작하며 초읽기에 들어갔다.

20일 덕유산리조트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0시 투키힐 슬로프에 거대한 굉음과 함께 2미터 간격으로 설치된 제설기에서 인공 눈들이 하얀 연기처럼 뿜어져 나오며 폭풍제설이 시작되었다.

제설은 투키힐 슬로프를 시작으로 커넥션 슬로프와 설천 강습장, 이스턴 슬로프와 눈썰매장까지 18일 오전부터 주말내내 쉬지않고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4~2015 시즌부터 3년동안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12월초 오픈을 했던 무주덕유산리조트는 제설작업에 박차를 가하며, 4년만에 다시 11월중 개장을 목표로 은빛 설원을 만들어 가고있다.

또한 슬로프 제설 작업에 앞서 지난 14일 오후 1시 설천베이스 에코 리프트에서 무주덕유산리조트 직원



들과 무진장 소방서 인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리프트 긴급 구조 훈련'을 실시했다.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리프트 긴급 구조 훈련은 스키 시즌 중 스키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인명구조를 하기 위한 훈련이다.

가상 재난 상황을 설정 후 물리식과 장대식을 이용해 인명을 구조하는 방법 등을 훈련했으며, 이를 통해 재난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능력 향상과 수행능력을 배양해 빠르고 정확한 현장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이달 말 연금저축 통한 ETF 투자상품 출시

이르면 이달 말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연금저축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상품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ETF는 코스피200 등 특정 지수를 안정적으로 추종하는 한편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그간 연금저축을 통해 ETF에 투자하는 것은 허용돼 왔다. 하지만 ETF 매매 시 증권사에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의 세제 관련 정비가 불분명해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 위탁매매수수료를 비용 처리가 아닌 자금 인출로 볼 경우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번에 기재부와 협의해 위탁매매수수료가 비용으로 처리되는 점을 명확히 했다.

연금저축을 통해 ETF에 투자하면 ETF 매수 여부와 상관 없이 연금저축

납입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연간 납입액 400만원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는 16.5%(최대 66만원), 종합소득 4000만원 이상은 13.2%(최대 52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중도해지 시에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안정적 노후자금 마련이라는 연금저축 취지를 감안해 투자종목은 제한된다.

장기투자에 부적합한 인버스와 레버리지 ETF는 연금저축펀드 편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인버스 ETF는 추종지수와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고, 레버리지 ETF는 추종지수의 2배 이상 변동되는 상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ETF는 수수료가 저렴해 장기투자를 할수록 비용부담이 적다"며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주식시장 등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저금리 시대의 효율적인 투자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스

기사제보 288-9700

'방만경영' 놓고 국회서 격돌

금감원, 직접 관리 vs 기재부, 독립성 침해 우려

감사원 감사 결과 '방만경영' 문제가 불거진 금융감독원의 예산통제권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는 금감원 예산의 80%를 차지하는 감독분담금을 조세에 준하는 성격의 '부담금'으로 전환해 직접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감원을 지휘하는 금융위는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 법안은 감독·검사 명목으로 금감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둬들이는 분담금을 준조세 성격인 부담금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이다. 올해 금감원 예산 3666억원 가운데 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9.7%다.

현재는 금융위가 금감원 예산 총액을 정하면 금감원이 각 금융사로부터 분담금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를 부담금으로 바꾸면 기재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9월 감사에서 "금감원이 상위 지급과 국의 사무소 등을 과다하게 운영, 이는 분담금 징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부담금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달 19일 국정감사에서 부담금 전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부담금은 금융사 감사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는 수수료 성격을 갖고 있어 부담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에 대해 기재부까지 금감원을 통제할 경우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독원이 예산과 운영이 방만하다는 지적은 있지만 통제를 꼭 그런 식으로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독분담금의 부담금 전환 문제와 관련해 기재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져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뉴스스

www.jjnh.co.kr

조합원님!! 자식 같은 농산물 모두 팔아주는 농협을 만들겠습니다.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으로 전주시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로컬푸드직매장 10곳 개소로 영세농업인 소득향상



복숭아



호박



미나리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장미



배



조합장 임인규

상임이사 (신용)오태식
상임이사 (경제)나병훈

이사 김대진, 김양순, 김종표, 김태영, 김형수, 송재규, 신동선, 오남석, 유석용, 이상현, 이성광, 주동현

사외이사 김병윤, 이희열

감사 정무성, 조미희

전주농협중앙회